Entertainment p/18
드라마 촬영장 폭행 논란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제284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비랑탈출 삼성 "대구 가자"

인천공항 인신인해' 약속 지킨 류현진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미국으로 출국한 지 7개월 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취재진이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현진은 7월 출국 당시 귀국 때 많은 분들이 마중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지켜 기쁘다"며 인산 미소를 지었다. <관련기사 22면> /연합뉴스

'적금 빼 주식' 고민하는 개미들

美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갈팡질팡 — "코스피 2300 거뜬" "2100도 힘들어" 엇갈려

#직장인 정태희(37)씨는 최근 예·적금과 채권형 펀드로 굴리던 종잣돈을 주식에 투자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저금리 기조가 워낙 길게 이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좇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지만 막상 실행하긴 쉽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다. 테이퍼링이 단행될 경우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정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격적인 재테크를 시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글로벌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변동성이 커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을 국내 기업 실적으로 돌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미 테이퍼링 가능성으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탄탄한 경제적 체력(펀더멘털) 덕분에 실제 테이퍼링이 단행되더라도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우리자산운용은 29일 향후 코스피 지수가 2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국내시장도 1~2년 안에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입장이다.

> **▶테이퍼링이란**
> 미국 중앙은행 격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리듯 시중에 통화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연준은 매달 850억 달러의 돈을 풀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단행되면 신흥국 등으로 대거 유입됐던 투자금들이 이탈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과 유럽 주식 등이 유망할 것으로 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최근 양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증시 밸류에이션(주가 대비 가치), 이익 모멘텀 등의 측면에서 모두 글로벌 경제의 상승권을 잡아는 상황"이라며 "코스피지수가 2050선에 안착하면 관매 행렬을 거듭하던 국내 펀드에도 다시 국내 투자금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점차 회복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유럽 주식도 투자 매력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코스피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경기 회복 정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면 증시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도 코스피지수가 2100선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늘고 있으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흔히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받는 코스피의 주가 수준이 박스권을 뚫고 진짜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민간 경기의 자생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신중호 하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이 보유 현금자산을 투자로 돌리려면 미 테이퍼링이 임박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란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테이퍼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로 고용·소비 등 민간 경기의 선순환이 이뤄질 때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

화장품업체 '추한 갑질'

서울 가맹점 4곳 중 1곳 '툭하면 계약해지' 고통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화장품 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곳 중 1곳이 불평등한 계약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본사가 만들어놓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과 사소한 실수로도 해지가 가능하게 한 규정은 주요 불평등 사례로 꼽혔다.

조사 결과 가맹점 13곳은 원치 않는 제품을 사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16곳은 본사가 일방적인 판매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을 강요받는 '물량 밀어내기'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 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을 제한하는 항목을 50여 개 이상 두고 있었고 복장 규정 위반 등 사소한 내용까지도 포함시켰다. 중도 해지 시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또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상품권 구입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불공정 피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원기자 ejw

'목숨건 턱 깎기' 강요하는 사회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체육부 기자>

며칠 전 한 여대생이 양악수술을 받고 쓰러졌다 9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양악수술은 아래턱과 위턱을 모두 잘라 새로 고정하는 수술로 성형수술 가운데서도 부작용이 가장 많은 수술로 꼽힌다. 원래는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부정교합 환자를 위한 수술이었지만 2~3년 사이 연예인을 중심으로 수술이 성행하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부작용과 비싼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양악수술의 평균 비용이 1114만원으로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 현저히 비쌌다. 비용뿐이 아니다. 양악수술은 신경이 많아 지나가는 턱 부위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 감각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고 수술 후에도 각종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양악수술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양악수술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연예인들을 앞세운 성형외과의 마케팅 역시 문제다. 수술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기보다는 양악수술을 단순히 '예뻐지는 수술'로 인식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오늘도 남들처럼 갸름한 턱을 갖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건 턱깎기에 나서고 있다.

양악수술은 미용수술이 아니라 부정교합 등으로 일상 생활이 곤란한 환자가 받아야 하는 교정수술임을, 또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할 시기다.

뉴스&뉴스

"오늘 재보선 오후 8시까지 투표하세요" 10·30 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전두환 재산 50억 추가 환수…공매대상 자산 230억원대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금융자산 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9일 중앙지검 계좌로 전씨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압류자산 가운데 시가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2건과 보석류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외통위 오늘 개성공단 시찰…현정부 국회차원 첫 방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30일 개성공단 현장을 시찰한다.

이번 개성공단 방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회 차원의 첫 방문으로, 국감 활동 차원의 첫 현지 방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최근 다시 주춤한 남북관계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화를 비롯한 개성공단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 5년간 48건…42건은 원인미상

●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4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1만 538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48건이었다.

사망사고 원인별로 보면 원인미상 기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정기자

서울 ADEX 개막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3)' 개막식에 참석한 후 첨단 항공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에서 원격진료 받는다

2015년부터 동네의원 원칙…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벽지 주민 우선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가정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격 진료는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온라인상으로 원격 처방을 발급받는 등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정에선 최근 이런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왔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통해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해 원격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상당 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술 치료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재택 환자 등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이나 교도소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특수 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도 원격진료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격 의료 허용 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행정적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 386@metroseoul.co.kr

독감 백신 품귀…보건소 접종 중단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조기 종료된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보건소가 29일 백신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접종 중단 안내문을 보건소 앞에 내붙였다. /연합뉴스

서울시 "심야택시 늘려 승차 거부 없애겠다"

서울시가 끊이지 않는 심야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택시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민수홍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29일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면 승차거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야간할증과 시외할증이 같이 붙기 때문에 심야전용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심야전용택시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운행 시간대 변경, 공서비스 연계 등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가 심야시간 개인택시의 운행 중단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도입한 바 있다. /김산환기자 mkim@

내년부터 대체휴일제…추석 연휴 첫 적용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이 쉬는 날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향후 10년간 계산하면 11일간 공휴일이 늘어나 연평균 1.1일이 증가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김산환기자 mkim@

6쌍 중 1쌍 '누나'랑 산다

연상녀-연하남 부부 비중 지속 증가 · '결혼의 계절'은 5월 아닌 10월

2000년대 이후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4부부 6쌍 중 1쌍에 해당할 정도로 크게 늘었고,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은 10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2000~2012년 13년간 총 혼인 건수는 월별 발생 기준으로 417만4584건으로 월평균 2만6760건이었다. 월별 평균 혼인 건수는 10월이 3만8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흔히 생각하는 결혼의 달인 5월은 3만4643건으로 11월에 이어 3위였다.

남녀 모두 초혼 부부 중 '연상남-연하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남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중은 2002년 74.1%에서 지난해 68.2%로 낮아졌다.

반면 '연상녀-연하남' 부부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15.6%로 4%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은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많아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혼 연령을 보면 1990년에는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에 첫 결혼을 했지만 2012년에는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늦어졌다.

이혼의 경우 지난 13년간 166만7145건이 이뤄졌고 월평균으로는 1만687건이었다. 월별로는 3월이 1만1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9792건으로 가장 적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합격사과 한 여성이 다음달 7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29일 부산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합격'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사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7일 수능일 한파 없을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수능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9일 "다음달 7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부산 12도, 서울 8도, 제주 13도, 강릉·청주·전주·대구 8도, 전주 7도, 춘천·대전 6도 등이다.

시험장별 날씨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에서 학교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시험 다가오면 'ADHD 약' 먹는 학생들

중고생 공부 잘하는 약 소문
입시철·학기말 오남용 심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물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 6~18세를 대상으로 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 처방량이 2010년보다 12.4% 증가한 65만6452건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13~18세 대상 처방량은 15만5697건에서 19만225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중학교 2·3학년(만 14·15세)은 연초에 견줘 학기 말에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2010년 1월 4682건인 처방량은 6월에 5629건으로 20% 증가했고 12월에는 연초보다 29% 많은 6030건이 처방됐다.

이는 지난해와 고등학교 2·3학년(만 17·18세)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은 수학능력시험 직전인 8~10월에 처방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 약이 집중력을 높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개연성이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희기자 [illegible]

불황에도 잘나가는 모피

3년간 50~60대 고객층 매출 무려 125% 증가
파격 디자인·컬러로 패션성 강화 인기 지속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속 소비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표적인 고가 상품인 '모피'의 인기는 계속돼 범판의류 시장에서 소비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층 가운데서도 40대 미만의 젊은층은 프리미엄 패딩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모피로 집중되는 세대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 점에 따르면 지난해 모피 매출 가운데 40대 이상 고객층이 무려 77%나 차지해 2008년보다 7%나 늘어난 반면 40대 미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모피가 다른 상품이 가질 수 없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으로, 중장년층의 품위 유지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롯데는 설명했다.

또 최근 중장년층 고객에게 불어닥친 '다운에이징'(Down-Aging) 열풍에 발맞춰 기존의 보수적인 스타일에 변화를 가해 더욱 세련되고 파격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패션성을 한화 한 것도 모피의 인기 지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무거운 느낌의 블랙, 브라운 컬러의 롱코트 위주에서 벗어나 블루, 화이트 등 화려한 컬러의 하프코트, 조끼 등 슬림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까지 풍기는 다양한 모피를 선보여 품위 유지와 패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모피 매출에서도 다운에이징 열풍의 핵심 연령층인 50~60대 고객층의 매출이 무려 125%나 증가, 다른 연령대 매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을 잘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4개점은 본격적인 방한의류 시즌에 맞춰 모피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4개 점은 내달 1일부터 각 점의 본 매장과 특설 행사장에서 '모피 페스티벌'을 열어 각종 모피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뉴시스

경남정보대 찬양대회 개최 경남정보대학교 측은 지난 26일 교내 대학교회에서 전국 중고교 찬양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KIT 전국 중 고등부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대선공약 예산 반영하라"

민주당 부산시당 촉구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대선공약 실행촉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7대 부산대선공약 정기국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부산대선공약 이행 촉구 대시민 활동에 나섰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해수부 부산이전과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이미 무산됐고, 신공항 건설도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한 뒤 "꿩 대신 닭이라고 내놓은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카드는 구체적인 로드맵마저 게시되지 못한 채 시작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약 특위는 총체적인 난맥상에 이른 박근혜 대통령의 7대 부산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이에 따른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의 2014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7대 부산대선공약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7대 부산 대선공약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이 저조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관련 대선공약이 잇따라 무산되자 지난 달 '부산 대선공약 지키기 특위'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특위 이름을 '부산대선공약 실행 촉구 특위'로 바꾸고 조직을 확대했다. /양영근기자

팽나무 이식 3주년 행사

수백년간 뿌리 내리고 살았던 부산 가덕도 율리마을을 떠나 3년 전 해운대 APEC나루공원에 새 둥지를 튼 팽나무 두 그루의 옛 보금자리에 후계목을 심어 대를 잇는다.

부산시는 팽나무 이식 3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강서구 천가동 빔꼴마당에서 '팽나무 이식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 빔꼴마당 주변에 율리마을에서 찾아낸 팽나무 자손수와 후계목을 심고 팽나무들의 이야기를 담은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또 나루공원에서 새 둥지를 튼 할매나무에서 채취한 종자를 주민들에게 전달, 자손수를 심도록 할 계획이다.

이곳 율리마을의 당산목이었던 팽나무 두 그루는 2010년 3월 30일 나루공원으로 이사를 했다.

수령 300~500년으로 '할매나무', '할배나무'로 불리던 이들 팽나무는 그동안 율리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 왔다.

부산식약청 부경대에 시험분석센터 별관 신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인·편집인	남국로
사장·편집인	김종하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영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지난 28일 오후 3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시험분석센터(센터장 권기성) 별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시험분석센터 별관 신설을 통해 대학 식품연구소를 비롯, 식품공학과 등 관련 학과들과 식품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티투어 탑승객 내달 1일 20만명 돌파 부산관광공사가 내달 1일 시티투어버스 탑승객이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올 초 부산관광개발㈜로부터 시티투어버스를 인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월평균 24%대의 탑승 증가율을 기록했다. 당초 공사의 올해 시티투어버스 탑승객 유치 목표는 19만 명이었지만 다음달 1일 자로 20만 명, 연말까지 23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제공

수험생 '브레인 푸드' 챙기세요

롯데호텔부산 마련

롯데호텔부산 라세느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과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브로콜리 샐러드, 토마토와 치즈(카프레제), 비트 샐러드 등이 샐러드 코너에 비치되며 기억력이 좋아지는 산류 방지 음식으로 고구마 해산물 그라탕, 라이 브레드 등을 선보인다. 또한 스트레스 음식으로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버섯과 요구르트 드레싱을 곁들인 양상추도 좋은 메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우울함을 없애주는 오트밀죽, 기분이 좋아지는 계란 요리(콩 스크램블)는 쥐에서도 쉽게 챙겨 줄 수 있는 음식들이다. DHA가 풍부한 훈제 연어와 참치 샐러드 등은 매년 시험철이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식욕을 돋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치킨 커리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바나나, 아몬드, 견과류로 만든 강정, 두뇌를 활성화 시켜주는 블루베리 케이크 등의 메뉴로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

한편 수험표 소지 학생 및 고3 학생증을 준비하면 수험생 1인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단 3인 이상 이용 고객 대상). 문의 및 예약 051-810-6430

/양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동남권의학원 암 전문의에게 들었다 — 10년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할 암은

"갑상선·전립선·유방암"

10년 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할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 전문의들은 10년 뒤에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3년 미국암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1위 전립선암, 2위 유방암, 3위 폐 및 기관지암, 4위 대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방식을 포함한 서구식 식습관과 야채를 적게 먹는 습관, 비만, 흡연 등이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습관과 생활습관, 유전자 등에 따라 미국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 순위가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2013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은 갑상선암(1999~2010년 연간 평균 증가율 남 25.5%, 여 24.5%)이고, 남성에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은 전립선암(12.6%), 여성에서는 유방암(6%)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남성·여성 모두에게서 대장암(남 6.3%, 여 4.7%)은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폐암(남 -0.8%, 여 1.5%)은 증가폭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전체 암 중 발병률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꾸준히 발병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연구자들은 이 암들이 흡연과 초경 및 폐경 나이, 임신 및 수유 여부 등의 산과력, 비만, 식습관, 평균수명 연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군기자 jhk@metroseoul.co.kr

시원 사회복지사상 15명 영예 시원공익재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5일 제8회 시원 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을 갖고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15명에게 시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부산희망등대주협지원센터 김기태씨 등 사회복지사 13명과 부산여성회관 김대영씨 등 공무원 2명으로 외국 선진 복지국가 견학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 건설경기 4분기 '빨간불'

올 4분기 부산지역의 건설업 경기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29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매출 상위 1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지역 건설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4분기 중에도 부산지역의 건설업 경기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4분기 건설업경기전망지수(CBSI)는 79.8을 기록해 여전히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쳤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이하면 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수주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4분기 부문별 수주 전망(CBSI)을 보면 공공 공사가 73.7을 기록했고 민간 공사가 89.7을 기록해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특히 부산지역 공공 공사의 경우 계속사업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도시철도 다대선 건설사업의 예산 반영 축소로 공공 공사의 수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량 감소에 따른 과열 경쟁으로 저가 수주가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도 지역 건설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수주 부진이 될 전망이다. 조사 응답 업체의 30.4%가 이를 경영 애로로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21.1%), 공사대금 회수 애로(11.8%), 과당 경쟁(9.8%), 자금난(8.3%), 건자재 가격 상승(6.9%), 임금 상승(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다자녀가정 미용료 할인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의 날'을 맞아 내달 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허남식 시장과 다자녀가정 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 3명의 자녀를 뜻하는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은 부산시가 2008년 5월부터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부채춤과 어린이 핸드벨공연 등 식전공연에 이어 대한미용사회 부산시협의회 회장과 다자녀가정 미용요금 우대 협약식 등이 진행된다. 이로써 다자녀가정은 지정 미용실에서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자녀 3명 이상을 둔 화목한 가정 10가정과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모범 조부모 10명,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 등 출산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3곳을 시상한다.

우체국 1회 이체한도 하향

우체국이 오늘부터 전자금융 이용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 한도액을 하향 조정 시행한다.

29일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해킹, 피싱 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이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1일 및 보안 1등급(OTP 고객)의 이체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30일부터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 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하면 된다.

market index <29일>

- 코스피 2061.77 (+3.72)
- 코스닥 533.91 (-1.07)
- 금리 2.8 (-0.03)
- 환율 1060.50 (변동 없음)

50대 車·60대 반려동물 위해 지갑 연다

50대는 자동차 구입에 60대는 애완동물에 70대는 주택 유지에 지갑을 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니어 시장도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 시니어 세대의 소비패턴 이란 보고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50대의 경우 지동차 구입에 쓰는 돈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소폭 높았다. 반면에 60대는 건강기능식품, 가사서비스, 화장품에 돈을 많이 썼으며 애완동식물에 대한 지출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70대 이상 계층은 주택 유지 및 수선, 해외여행, 국내여행, 건강기능식품 등에 지출 비중이 컸다.

고은지 연구위원은 "같은 나이대라도 소득에 따라서 지출 양상은 편차를 보였다"며 "예를 들어 화장품과 같은 품목은 50대까지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60대, 70대 이후로 갈수록 고소득층은 많이 사고, 저소득층은 급격히 지갑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희철기자 hmtee@

뉴스 & 뉴스

유자·하우스 딸기로 감기예방 29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직원들이 올해 첫 출하하는 하우스 딸기와 유자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하한 하우스 딸기와 유자는 비타민이 풍부해 환절기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 지난달 경상수지가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6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56억8000만 달러나 지난해 동월 59억1000만 달러보다 큰 규모다. 이로써 올 들어 9개월간의 경상수지 흑자는 43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1.7배에 달한다. /김민지기자

은행들 가산금리 잇단 인상

●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장기화로 이자 이익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3.70%로 받았다. 이는 9월의 평균금리 3.62%보다 0.0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하나은행도 국민은행과 비슷하게 금리를 조정했다. /김민지기자

최문기·이석채 흔들 '갈대밭 ICT'

실적없는 미래부 장관 '개각 1순위설'··'MB맨' KT회장 운명 검찰 손에

그간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이끌어온 주요 인물들의 교체가 예상돼 ICT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밀려올 전망이다. 국내 ICT 분야의 방향타 역할을 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과 이 분야의 맏형 격인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오는 연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 대해 '교체 1순위'설이 나돌고 있다.

최문기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최문기 후보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과 비전도 없고 전혀 공부도 돼 있지 않았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실제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기본적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출범 6개월이 넘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부처인 미래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의 교체론은 더욱 뚜렷한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10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이 회장 교체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KT와 포스코의 경우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됐지만 사실상 정권 교체 시마다 전리품으로 여겨져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회장이 MB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로, 지난 정권의 공공기관장처럼 교체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현재 KT 회장 후보로 H씨, K씨, L씨 등 3배수로 추려놓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에 대해 이 회장은 단순 압박용으로 판단해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 5년 전 남중수 전 KT 사장의 사례처럼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SKT, 스마트폰 중독막는 앱 출시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 를 돕는 스마트 앤드코치 애플리케이션을 29일 출시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고 각 앱의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간을 그래프로 보여줘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도록 돕는다. /SK텔레콤 제공

'미래 화폐' 비트코인

조선미 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새로운 '미래 화폐'의 등장인가 지하경제의 '암흑 화폐'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상 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마이클 노보그라츠 포트리스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큰손'들이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하면서 '디지털 금광'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노보그라츠는 석 달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낙관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개발자가 고안해 2009년 1월부터 발행됐다. 정부나 발행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용자 간 P2P(다자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이 설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든지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몇 년 새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교환해주는 거래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얼마 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규모는 22억 달러(약 2조3362억원)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사용이 세계적 으로 퍼지고 있다. /블룸버그

LG경제연구소의 이장선 연구위원은 "바이두와 같은 대규모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나온 가상 화폐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문제점이지만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지하경제에서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규제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화폐의 길을 걷을 수도 있다"고 지적됐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정해져 있다. 2040년쯤이면 비트코인의 발행이 거의 끝난다. /sun@

나랏돈으로 '빚 구제' 올 한해 69만명 혜택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6만7000여 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서민 채무 조정이 68만~6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10월 말까지 18만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 보증 채무자 구제 등 전반적인 서민 재활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말 시작된 행복기금은 개별 신청 마감인 이달 말까지 21만명이 신청해 18만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바꿔드림론'은 올해만 5만234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준기자

내 생애 첫 집!

내 집 마련의 꿈, 국민주택기금과 신한은행이 함께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자	부부합산연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천만원 이하인 분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6 ~ 3.4 % (변동금리) 소득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으쓱한 SKT

3분기 영업익 5514억 전년동기비 88% 증가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 3분기 영업이익 55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8.4%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 1246억원, 당기순이익은 5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86.0% 증가했다.

영업이익 신장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감소시키고 '착한기변', 장기 가입자 혜택 강화 등 기존 가입자 대상 혜택을 늘려 우량 고객 유지와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SK텔레콤 측은 분석했다.

매출은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 상승과 B2B 솔루션 등 신규사업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늘었다. SK텔레콤 3분기 청구 ARPU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비중 증가 효과로 전분기 대비 2.6% 상승한 3만4909원을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는 약 1227만 명을 기록, 전체 가입자의 45%를 넘어섰다.

3분기 평균 해지율도 2.25%로 전분기(2.27%) 대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9월에는 1.98%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 등 투자회사 효과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7.4% 올랐다.

/이재영기자 ljy0403@

'미분양 바다'속 진주알 찾아라

양도·취득세 감면 종료 앞두고 도심 역세권 단지들 '주목'

전세난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혜택이 많은 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서울·수도권 정비구역 아파트 물량은 1만9588가구에 달한다. 이들 물량은 모두 도심과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단지들에 비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올해 안에 집을 사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등의 재개발 물량이 분양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3885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 업무지구가 가까워 직장인 배후 수요가 두텁다.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총 2652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가깝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텐즈힐' 아파트도 분양 중이다. 총 1702가구 규모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2호선 신설동역, 2·6호선 신당역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올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데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며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많아 입주 후에도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보지기자 mini@metroseoul.co.kr

"털 빠짐·털 뭉침 없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충전재 빠짐 및 쏠림 현상 방지 등 총 13가지 기능으로 구성된 '히트 바이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다운재킷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 'VIP의 집사' 자청

자산관리·공연초대·상조 등 맞춤서비스 경쟁 치열

주요 보험사들의 VIP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부터 문화행사 초대, 건강검진, 심지어 장례용품 지원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다양해졌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무·부동산·금융 투자'은퇴보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VIP 고객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VIP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노무 컨설팅, CEO 재무·은퇴 컨설팅 등을 하는 '기업고객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생명은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VIP 고객 본인 또는 배우자나 양가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장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무상 지원한다. 또 예술의전당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11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부터 VIP 고객을 위한 '삼성패밀리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다양한 재무 설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 시대에 결국 지갑을 여는 것은 부자들"이라며 "보험사들의 'VIP 고객 모시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경이기자

오바마, 수상해…

버락 오바마 왼쪽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수사국 FBI 본부에서 열린 국장 취임식에서 제임스 코미 FBI 신임 국장과 나란히 서 있다. 코미 국장은 10년 전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부장관 재직 당시 권한 없는 도청에 대한 백악관 요구를 거부했었다. /AP 연합뉴스

美 언론 "도감청 몰랐다"는 대통령 해명 비판 — 정치권도 "NSA 활동 재검토해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도 감청 의혹과 관련 국제 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28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결백할까?"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몰랐다면 지도자로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오바마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여름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외국 지도자 35명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것으로 밝혀져 백악관이 일부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정부 감사 내용을 전했다.

과거 NSA의 활동을 지지했던 의원들도 우방을 도 감청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도를 바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등 우방 지도자들의 정보 수집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NSA의 활동은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외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NSA의 정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활동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보 당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에 관련돼 있다"면서 "향후 관련 활동 내용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등 각국 정상을 도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가해자 인 미국 정부가 애써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자 인 독일과 스페인 등 각국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독일은 다음달 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에 총리실 대표를 보내 NSA의 도청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하루에 번개 두 번 맞고도 살아난 美 행운아 화제

미국에서 같은 날 번개를 두 번이나 맞고도 살아난 '번개맨'이 화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테사스주에 살고 있는 제어시 와그너(31)는 전날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했다가 번개를 연속으로 두 차례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와그너는 대회 도중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가 번개를 맞았다. 그는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른쪽 다리와 가슴 쪽으로 스며든 뒤 빠져나갔다"면서 "잠시 후 번개가 또다시 몸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늘이 도왔을까? 그가 번개를 맞고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를 발견했다. 와그너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조선미기자

조강력 폭풍 서유럽 강타 2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심에 주차된 자동차 위로 강풍에 뿌리뽑힌 나무가 쓰러져 있다. 이날 26년 만에 허리케인급 폭풍이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지역을 강타, 10여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AFP 연합뉴스

'화가 스탤론' 제법인데!

metro Russia

러시아서 작품 전시회 수익금 전액 기부키로

할리우드 스타 실베스터 스탤론이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립 미술관인 루스키 무제이에서 전시회를 열고 화가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화가로 활동하는 것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많다. 하지만 스탤론은 1970년 배우로 데뷔하기 이전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예술학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키워오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탤론은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화가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내 작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칭찬만 하신 것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가로서 항상 배우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스탤론이 꼽은 자신의 최고 작은 1977년도에 그린 '친구의 죽음'이란 작품으로 그가 배우로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 '록키'를 촬영할 당시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그린 작품이다. 스탤론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내가 존경하던 매니저 제니 올리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던 때 그린 그림"이라며 "당시의 고통과 슬픔 등을 화려한 색감으로 재해석해 슬픔을 승화시키려고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스탤론의 친구 올리버가 생전에 좋아했던 붉은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상복을 입은 주인공의 뒤편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한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며 전시회의 모든 수익은 아픈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고리 카라세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뮤직' 필 받은 스폰서

기업들 최근 음악축제 후원 붐 '젊은 브랜드' 이미지 각인효과 세계시장 겨냥 절호의 홍보기회

"음악 후원 제가 할게요! 홍보되니까."

음악 축제 후원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자동차 업계다. 기아자동차는 유튜브가 창립 8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 '유튜브 뮤직 어워드(YTMA)'를 단독 후원한다. 다음달 3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이 행사는 올해의 뮤직비디오상, 아티스트상, 배려다상 등을 시상한다. 레이디 가가, 에미넴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는다.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기아자의 금색한 로고가 찍힌 YTMA 안내 광고를 최소 5초 이상 시청해야 한다. 유튜브 이용자가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기아자는 엄청난 브랜드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 단골 경품도 자동차다. 엠넷 '슈퍼스타K 5'는 톱 4 진출자에게 르노 삼성 QM3를 선물로 증정했다. 최근 종영한 엠넷 '보이스코리아 2'는 시트로엥 자동차를 우승 상품으로 내걸었다. 앞서 MBC '위대한 탄생' 우승 준우승자는 기아차 K7·K5를 받았다.

다음달 22일 홍콩에서 열리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는 기업 마케팅 대목이다. CJ 계열사가 대거 후원사로 참여하며 금융, 화장품 회사 등이 공식 파트너로 브랜드를 알릴 예정이다. BC카드와 닛산은 고객 대상 'MAMA 관람대' 모집 마케팅을 벌인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 축제 후원은 기업의 젊은 이미지를 강화하고 세계시장에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회"라면서 "자동차는 무대에 세워놓기도 좋아 노출 빈도가 크고 경품을 받은 참가자가 모델 역할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황용희기자 un.use@metroseoul.co.kr

'합격 비법'으로 빵빵한 점수를 수능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파리바게뜨가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수능 세트 '합격 비법' 시리즈 출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011·016·019 올연말 '010 자동이동'

올 연말로 종료되는 '01X 번호'를 두고 여전히 번호이동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3년간 01X 번호로 3G나 LTE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01X 번호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종료된다.

9월 현재 01X 번호 이용자는 SK텔레콤 94만 명, KT 34만 명, LG유플러스 11만 명 등 총 약 140만 명에 달한다.

주로 보험, 택배 등 사업자들을 비롯해 일부 이용자들이 011, 016, 019 등 번호에 대한 프리미엄(오랜 기간 번호를 유지해옴으로써 생기는 신뢰 등)으로 인해 010 번호 이동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010 번호로 바뀌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까운 매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번호이동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하나기자 [illegible]

지상파 DMB 매출 70% 급감

지상파 DMB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36억원의 광고 매출을 기록했던 지상파 DMB는 올해(9월 기준) 8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3년 사이 매출이 3분의 1까지 줄어든 셈이다.

광고 매출만큼 시청률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확산, LTE 서비스 본격화 등으로 지상파 DMB 이용이 줄어든 탓이다. /박성훈기자 [illegible]

백진주 중고 소형 '컬러 프리미엄'

되팔기 고려한 신차 구입 팁

준중형 흰색 선호도 높아 순정 내비·선루프 '제값' 수리 내역서는 꼭 챙겨야

자동차 교환 주기가 빨라지면서 신차 구매자들이 팔 때 중고차 제값 받기에 나서고 있다.

즉 적정 가격으로 중고차를 팔기 위해 신차 구매 시 어떤 요소를 적극 감안한다는 것이다. 최근 새차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대목에 초점을 맞추는지 살펴봤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차의 색상이다. 중고차에서 통하는 컬러는 의외로 단순하다. 흰색, 검정색, 은색이면 나중에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물론 차 덩치에 따라 차이는 있다. 대형 세단은 검정색과 은색, 준중형은 흰색을 선호하며 중형은 3가지 색상 모두 인기가 있다.

소형차는 색상에서 다소 자유롭다. 그럼에도 화이트펄(백진주)의 경우 광이 달라 다른 컬러의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중고차를 생각한다면 개성 있는 소비는 포기하는 게 좋다. 즉 남들 사는 차를 사야 제값을 받는다.

예를 들면 준중형에서는 아반떼가 유리하다. 경쟁 모델인 K3, 뉴 SM3 와 상품성도 크게 뒤지지 않지만 판매량에서 아반떼가 앞서기 때문이다.

대체로 신차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일수록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다.

옵션 사양은 아무리 많아도 크게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순정 내비게이션이나 선루프는 선호도가 높아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외부에서 구입한 내비나 오디오 시스템, 휠 등은 덤으로 선물한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수리 내역 증명서를 보관하는 일이다.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오일 등 소모품을 주행거리에 맞게 교체했는지, 사고 뒤 수리를 받을 때 공식 대리점에서 진행했는지 등을 증명서로 보관하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중고차를 산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특히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잦은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챙겨야 한다.

중고차 거래업체 AJ렌카 심승민 본부장은 "중고차에서 통하는 매력을 가진 신차를 사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최대한 감가상각을 줄이려는 합리적 소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쿠페+그랜드 투어링 카 롤스로이스 '레이스' 출시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29일 국내 세번째 모델 '레이스'를 출시했다.

'신사의 궁극적 그란투리스모'를 표방하는 레이스는 넉넉한 공간의 쿠페형 자동차와 그랜드 투어링카를 결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최고급 브랜드에 걸맞은 호화 요트 느낌의 인테리어를 갖췄다. 목재와 천연가죽 시트, 1340개의 광섬유 램프가 들어간 헤드라이너 등이 대표적이다. 6.6ℓ 12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고 624마력, 81.6kg·m의 토크를 뿜어낸다. 제로백은 4.6초. 덩치가 큰 만큼 연비는 6.3km/ℓ에 그치며 가격은 3억9000만원부터다.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신차 '레이스(Wraith)'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뉴 쏘울 1호차 주인공 최근소씨 /기아차

올뉴 쏘울 1호 주인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기아자동차 '올뉴 쏘울' 1호차 주인공이 됐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인 최은선(27)씨를 올뉴 쏘울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하고 28일 서울 압구정동 지점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올뉴 쏘울 1호차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선물로 증정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쉐보레 스파크 '100만대 돌파

한국지엠이 개발을 주도한 글로벌 경차 '쉐보레 스파크'가 1호차 생산 이후 4년여 만에 글로벌 생산 100만 대를 돌파했다.

스파크는 2009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1호차가 생산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4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지에서 총 101만3930대가 생산됐다.

이 중 경차 생산 전문인 창원공장에서 완성차로 68만7755대, 창원공장의 반조립부품수출방식(CKD)을 통해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등 GM의 해외 공장에서 32만6175대가 생산되며 늘어나는 글로벌 경차 수요에 부응했다. /박성훈기자

부영 브루나이서 한류 졸업식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랑하는 브루나이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졌다.

지난 28일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위치한 제루동국제학교 예술관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한승수 전 총리, 페힌 하지 아부 바카르 브루나이 교육부 장관, 최형구 주브루나이 한국대사, 150명의 졸업생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최초의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식은 부영그룹이 기증한 디지털피아노 반주에 맞춰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졸업장 수여와 선물 증정, 졸업생 및 재학생 인사말, 브루나이 동요와 한국의 졸업식 노래를 합창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이 회장이 2011년과 2012년 브루나이에 한국의 '졸업식 노래'와 '고향의 봄' 등이 담긴 디지털피아노 440대를 기증한 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브루나이 정부에서 마련한 것.

이 회장은 "브루나이와의 우호 증진과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드링키 열전 | 벤츠 뉴 E클래스

252마력 강력한 힘에 매끈한 몸매

벤츠는 비유를 하자면 넋크래커에 낀 호두다.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 BMW는 독야청청 거단 길을 가고 있고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자체를 거부 나억했던 아우디가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우디가 2위로 치고 올라온 상태다.

BMW는 압도적인 동력 성능이, 아우디는 양산차 가운데 최고 수준의 디자인이 강점이다. 이에 반해 벤츠는 독보적인 삼각 꼭지별 엠블럼이 주는 감성 외에는 큰 임팩트가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등장한 모델이 4년 만의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한 E클래스다. 이 차는 벤츠의 볼륨모델이자 간판이라 할 수 있다.

어지간한 변신으로는 현재의 2위 자리도 어렵다고 본 것일까. 같은 차를 외관이 전혀 다른 두 종류로 출시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기존 E클래스를 계승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을 채택한 '엘레강스'와 스포츠카처럼 역동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아방가르드'가 주인공이다.

시승차인 아방가르드는 벤츠가 만든 역대 자동차 중 가장 잘 생기고 매끈한 몸매를 자랑한다. 엠블럼을 가리면 벤츠임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인테리어의 경우 전작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시트나 기기 장든 상태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신차는 3498cc V6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4.7kg·m의 힘을 자랑한다. 엔진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아지고, 연비가 9.4km/ℓ에서 10.3km/ℓ로 약간 올라갔다.

승차감, 주행·제동 성능 등 달리기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굳이 지적할 게 없지만 BMW와 렉서스의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느낌이 든다.

벤츠 특유의 '은근히 잘 달린다'는 느낌도 좋지만 BMW가 그렇듯 '대놓고 시원하게 달린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또 다른 엔진을 장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가격은 7060만원인데 이는 엘레강스보다 280만원 비싼 수준이다. 옵션이 다소 추가됐다는 게 벤츠 측 설명이다. /박성훈기자

붐비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201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위해 줄지어 현장등록을 하고 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9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구직자에게 내년도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연합뉴스

‘뜬구름 스펙’보다 M·U·S·T

뛰려다 취업 기본요건 놓치면 낭패… 꼭 갖춰야할 맞춤형 스펙 눈길

'취업 8대 스펙'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하반기 공채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존 '취업 5대 스펙(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에 봉사, 인턴·수상 경력까지 갖춰야 취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스펙 쌓기가 취업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있다.

김세준 YBM커리어캠퍼스 취업컨설턴트는 "너무 튀는 스펙보다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꼼꼼히 챙겨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M(Mos), U(URL), S(Speaking), T(Teamwork)로 맞춤형 스펙을 쌓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OS'로 실무형 인재임을 알려라– 사무용 프로그램(OA) 활용능력도 취업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문서 작성과 복잡한 계산 등에 쓰이는 엑셀 등에 대한 실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덕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대상, 아모레퍼시픽, 웅진 등 1700여 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URL' 관리로 넘치는 끼를 표현하라– 최근 들어 지원서에 개인이 운영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소(URL)를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입사원 채용할 때 SNS를 참고하는 기업이 52%에 달했고 SNS로 인재 선발에 도움을 받았다는 대답은 무려 9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취업용 SNS는 개인적인 글보다는 취업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창 시절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대학생 마케터 등 대외활동 모습을 올려 적극성을 표현하고 지원 분야에 대해 공부한 내용, 관련 기사 스크랩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Speaking'으로 실용영어 능력을 증명하라– 단순한 영어 점수보다 실용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약 51%가 영어 면접을 시행하고 있으며 약 21%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OPIc)과 같은 공인 성적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Teamwork'로 협업 능력 뽐내라–협동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토론·집단 면접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 이때 면접관들은 리더의 자질도 체크하지만 경청하는 조력자인지 여부도 살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협력을 할 줄 아는 인재임을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토론·집단 면접을 할 경우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회부기자 kmlee@metroseoul.co.kr

프랑스식 과자의 세계 ‘오묘’

김현정 기자의 투잡 체험기

제과 제빵 ⑤

앞으로 2회에 걸쳐서는 프랑스 제과 강습기를 연재한다.

최근 디저트 열풍이 불면서 종전에 맛보기 어려웠던 고급 제과·제빵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번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요리 아카데미인 츠지원(tsujione)에서 마련한 '프랑스 지방 과자' 특별 강습을 수강했다. 특별 강습은 비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달 2주에 걸쳐 진행된 강습에서는 프랑스 북동부·북서부, 남동부, 남서부의 과자를 자세하게 다뤘다. 또 국내에서 성공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형의 마카롱과 현지의 다양한 맛과 모양의 마카롱을 선보였다.

기자는 이 가운데 프랑스 북서부 지역의 과자를 배워봤다. 브르타뉴 리옹 등으로 잘 알려진 이 지역의 과자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유제품이나 향료 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퀴니 아망의 결면에 슈거파우더를 묻히는 모습 /김현정기자

강사는 퀴니 아망, 갈레트 브르통, 파르 브르통, 말리든 퇴르굴르와 5가지 메뉴를 선보였다. 캐러멜로 뒤덮인 모양새와 바삭한 식감의 퀴니 아망 정도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며 나머지 메뉴는 강사가 프랑스 현지를 오가면서 직접 배운 레시피를 전수했다.

반죽에서부터 난이도가 꽤 높을뿐더러 만드는 과정이 세심하고 까다로워 제과·제빵 초보자들이 만들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실제 수강생들 중에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파티셰들도 있었다.

재료 역시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거의 모든 재료를 프랑스산으로 썼다. 강사는 "수제 과자는 비싼 돈을 들여 사려도 팔 가치가 있다"며 제품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kim@

“능력 외 요인이 취업결정” 구직자 무려 90%가 응답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능력 외 요인이 취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9일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대부분(90.4%)은 합격에 능력 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벌 및 파벌'(31.8%)이 꼽혔다. 이어 '부모님의 인맥'(27.8%),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10%), '집안 배경'(8.5%), '내 인맥'(7.5%), '외모'(6.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실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67.2%)을 차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Daum AIG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도움이 돼야 진짜 보험 아닌가요?

그때 그때 부모님께 힘이 되는 보험, AIG 명품부모님보험

-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치매간병비II(중증치매) 3천만원 지급**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받으시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면 최초 1회만 지급
- **암 진단비II 2백만원**
  가입 후 91일 부터 보장하여 최초 1회한 지급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 **7대질병 수술비 50만원**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수술시 지급
- **간병도우미 1회 3만원(연 5회)**
  치매담보 가입자가 중증 치매로 확진되어 치매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명품부모님보험 | 부모님동시 가입시 10% 할인혜택

1644-9896

월 보험료(1인당)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II(중증치매)			암 진단비II		7대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80세	11,830		50세	820	1,650	2,000	2,470	180	90	14,330	15,740
			60세	3,380	9,020	4,100	3,010	300	180	18,310	22,740
			70세	[illegible]	40,020	7,220	3,530	470	350	[illegible]	55,430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돼서 큰 병 대비, 미루고 계셨나요?

큰병이기는보험은 40세 남자 월 20,070원!

(5년만기 전기납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골절진단·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실제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수술·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암 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여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1577-6429

월 보험료(1인당)

골절진단·수술·화상진단 의료비용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50세	13,230		30세	1,440	4,340	600	380	600	190	15,770	16,110
			40세	4,080	9,780	1,780	880	1,020	360	20,070	24,230
			50세	8,800	11,220	4,460	3,100	1,780	720	28,250	28,27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0,840	1,816	0.7%
3년	722,520	28,944	4.0%
5년	1,204,200		0%

11월 오색빛깔 '영화 성찬'

'세이프 헤이븐' 필두 '친구2' '카운슬러' 등 기대작 줄이어

충무 열기가 가라앉은 극장가가 11월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풍성한 작품들로 다시 끓어오를 전망이다. 로맨스는 물론 액션 스릴러 판타지 코미디 등 여러 장르의 작품성을 갖춘 국내외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된다.

11월 흥행의 포문을 여는 작품은 '세이프 헤이븐'(7일 개봉)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겨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 '노트북'과 '디어 존'의 원작자 니컬러스 스파크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서히 드러나는 과거의 비밀이 흥미를 더하는 로맨스와 서스펜스의 조화가 재미를 더한다.

14일에는 성인영화의 흥행 역사를 썼던 '친구'의 속편인 '친구 2'가 12년 만에 관객과 만난다. 곽경택 감독과 유오성을 비롯해 주요 스태프가 다시 뭉쳐 전편보다 더욱 강해진 액션과 카리스마를 선사한다. 거친 남자들의 어두운 세계를 다룬 한국 대표 액션 누아르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날 개봉하는 '카운슬러'는 특유의 미술적 감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선보이는 범죄 드라마다. 쫓고 쫓기는 치밀한 두뇌싸움을 다룬 스토리와 마이클 패스벤더·캐머런 디아즈·브래드 피트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것 자체만으로 화제를 모은다.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스릴러 '더 파이브'도 같은 날 개봉된다. 김선아·마동석·신정근·정인기 등 원작과 싱크로율 높은 배우들이 출연해 탄탄한 원작의 재미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21일에는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킨 '헝거게임'의 속편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가 강렬한 액션과 화려한 비주얼로 무장해 전편을 뛰어넘는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매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세이프 헤이븐'

'친구2'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43화 글 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PHOTO

예쁜 남자 VS 보통 여자 가수 아이유와 배우 장근석이 깜찍한 '돼지머리 고사' 인증샷을 공개하며 남다른 케미를 자랑했다. 다음달 20일 첫 방영될 KBS2 새 수목극 '예쁜 남자'의 남녀 주인공으로 나선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드라마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첫 촬영에 돌입했다. 극중 예쁜 남자 독고마테 역을 맡은 장근석은 "이 작품을 위해 3개월간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독고마테를 짝사랑하는 김보통 역을 연기할 아이유 역시 "보통이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룹에이트 제공

▶ 돼지머리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 /박진현기자 [illegible]

YG '윈' 음원 아이튠즈 5개국 넘버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예비 신인 그룹 위너가 데뷔 전부터 기성 가수를 위협하는 막강한 인기를 얻고 있다.

YG 신인 데뷔 프로그램 '후 이즈 넥스트: 윈'의 마지막 방송에서 선보인 곡들로 구성한 앨범 '파이널 배틀'이 해외 5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25일 오전 일본·홍콩·싱가포르·태국·베트남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아시아뿐 아니라 북남은 지역에서 가파르게 순위를 높이기고 있다.

앨범에는 YG 신인 그룹 위너로 선택된 우승자 A팀의 '고 업', 패배팀 B팀의 '클라이맥스', YG 프로듀서 테디의 미선곡이었던 '저스트 어나더 보이'의 두 가지 버전 등 총 4곡이 실렸다.

27일 일본 4대 스포츠신문이 위너를 대서특필하며 신인 그룹의 탄생 과정을 이례적으로 집중 조명한 데다 위너가 일본 데뷔를 예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아이튠즈 1위 기록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중화권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중화권 최대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에서는 25일 생중계된 마지막 배틀이 200만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에 이른다. 여우쿠를 통해 소개된 총 10편의 프로그램은 회당 평균 120만 뷰를 달성했다.

총 3번의 경연을 통해 위너로 선정된 A팀은 본격적인 데뷔 준비에 들어간다. /유순호기자

"세명과 세번의 거친 베드신 힘들었죠"

영화 '배우는 배우다' 주연 이준

엠블랙의 이준(25)은 여느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 드 영화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세계 영화계가 인정한 김기덕 … 주연을 맡았다. 화려한 신고식을 마친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열정이 끓어 …

◆ 김기덕 초스피드 제작 시스템

김기덕 감독은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을 맡은 영화 '배우는 배우다'의 주인공으로 이준을 발탁했다. 4년 전 '닌자 어쌔신'에 비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것이 영화계 경험의 전부인 신인으로 파격적인 캐스팅이다. 김 감독은 물론 연출을 맡은 신연식 감독은 배우로서 그의 끼와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다.

"김기덕 감독님의 오랜 팬이고 '나쁜 남자'와 '피에타'를 특히 좋아해요. 연기자라면 누구나 도전해 보고 싶은 강한 색깔을 지닌 작품들이잖아요. 소속사에서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을 하자고 만류하기도 했지만 이번 영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죠."

배우 지망생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최고의 스타가 되지만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인물 오영을 연기했다.

"시나리오가 매력적이었던 만큼 직접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완벽히 이해하기에 난해한 이야기 구조, 엄청난 대사량, 영화 속 영화와 연극 같은 복잡한 설정 등 한 달 남짓 동안 촬영하면서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죠."

김 감독 특유의 초스피드 제작 시스템에 맞춰 시나리오 순서와 상관없이 앞뒤 장면을 오가며 촬영했다. 극적으로 오가는 인물의 감정을 시나리오 흐름대로 연기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충은 배가됐다.

"촬영장에서는 내내 뛰어다녔어요. 드라마 촬영장보다 더 바쁘게 돌아갔죠. 리허설 없이 촬영하기도 했고 50초 만에 끝낸 신도 몇 개나 됐어요."

촬영은 새롭고 힘든 경험의 연속이었다. 3명의 여배우와 번갈아가며 전라의 노출로 소화한 강도 높은 베드신도 그중 하나였다. 많은 지인을 초대해 진행한 '절친 시사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베드신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베드신을 위한 베드신이 아니라 오영이 처한 상황과 변화하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장면들이죠. 마냥 야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거칠면서도 서늘하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 예능욕심버릴수 없다

정상의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이런 연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작품에 깊게 빠져 있어서 그런 점 걱정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인터뷰 때 질문을 자주 받다 보니 그때야 생각해 보게 됐죠. 아이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촬영 때는 잘해낼 수 있을지만 고민했죠."

밑바닥↔스타 롤러코스터 배우

"소속사서 작품 만류 양보 안해 촬영기간 편한 날 하루도 없어"

영화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다른 스케줄까지 겹치며 극도로 예민해졌다.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고정 출연 중이었고, 연말 시상식 시즌을 맞아 방송사마다 모두 다른 특별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멘탈붕괴 수준이 아니라 '완전 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끝내고 나니 큰 교훈을 얻었어요. 너무 힘든 고통이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생할 때 확실히 하자'는 신념을 갖게 됐어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로 예능계 블루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능은 제게 무척 소중해요. 진득하게 연기자 생활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능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 없죠. 요즘은 에피소드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예능에서 웃기지만 연기도 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홍정미(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시트콤 '감자별' 까메오 출연

'대세남' 이종석이 tvN 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CJ E&M은 29일 "이종석이 김병욱 PD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영화 '노브레싱'의 개봉 등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출연을 결정했다"며 "이번주에 촬영에 참여하며 다음달 4일 방송될 15회에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종석은 2011년 김 PD가 연출한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첫 키스신 촬영 "긴장백배"

SBS 수목극 '상속자들'의 이민호와 박신혜가 달콤한 키스신을 선보인다.

31일 방영될 8회에서 옥상에 올라온 김탄(이민호)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는 차은상(박신혜)을 감싸안고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방영된다. 키스신은 27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3시간 넘게 진행됐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담아낸 키스신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수목극 '별에서…' 캐스팅

배우 유인나가 12월 방영될 SBS 수목극 '별에서 온 남자'(가제)에 출연을 확정했다.

29일 소속사에 따르면 유인나는 한류스타 천송이(전지현)의 친구이자 아역배우 출신 여배우 유세미 역을 맡았다. 이 배역은 천송이의 절친이지만 일과 사랑에서 늘 천송이에게 밀려 아픔과 질투심을 가진 인물이다.

종편 노래경연 '하모니' MC

방송인 신동엽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하모니'의 MC로 나선다.

31일 첫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 가족 네 팀이 희로애락의 사연을 무대에서 노래로 풀어내며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동엽은 출연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다른 가족과의 경합에 흥미를 자극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랑해서 남주나' 폭행 쉬쉬

제작진, 촬영시간 미준수로 A 매니저 구타… "합의·사과 없어 방송사 갑의 횡포"

MBC 주말극 '사랑해서 남주나' 촬영 중 폭행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드라마의 FD 이모씨는 20일 촬영장에서 촬영 시작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연진 A의 현장 매니저 송모씨를 폭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이씨로부터 예정보다 이른 콜타임을 받자 헤어숍에 들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A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진행했고, 이씨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촬영 시간을 어긴다며 목소리를 높여 두 사람의 언쟁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송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폭행 피해를 당한 송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지만 합의나 가해자의 공식 사과도 없이 제작진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씨의 한 측근은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했다. MBC와 외주제작사 역시 방송에 차질을 줄까봐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쉬쉬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A의 소속사는 법적 조치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현장 매니저를 교체하고 오히려 제작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문제가 커질 경우 방송사와의 관계만 악화될 수 있다. 또 방송 초반에 드라마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A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드라마 편성권을 쥐고 제작 과정에서도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도 갑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전혀 듣지 못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유순호기자 juno@metroseoul.co.kr

지난달 열린 MBC 주말극 '사랑해서 남주나'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들이 드라마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남장 여자' 하지원 눈길끄네

'기황후' 시청률 1위 출발

뜨거운 역사 왜곡논란 속에 베일을 벗은 MBC 월화 사극 '기황후'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28일 방영된 첫 회는 훗날 원나라의 기황후가 되는 승냥(하지원)과 고려의 왕 왕유(주진모)의 첫 만남을 속도감 있는 전개와 화려한 영상미로 그려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장 여자로 몸 사리지 않는 액션을 선보인 하지원의 연기가 돋보였다.

시청률은 11.1%(닐슨코리아 전국 가구)로 SBS 수목한 가정부 (9.3%), KBS2 '미래의 선택'(4.9%)을 제치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방영 전 고려 정벌을 명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 기황후를 미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역사 왜곡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논란이 시청률에는 도움을 준 셈이다.

이날 제작진은 역사 왜곡 논란을 의식해 본 방송에 앞서 "드라마는 고려말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했으며, 일부 가상의 인물과 허구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실제 역사와 다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문구의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다.

방영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제 제목을 바꿔라" "보기 불편하다" 등 여전히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글이 끊이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현기자 tak0427@

손예진·김남길 "열애 아니다"

배우 손예진(사진 오른쪽)과 김남길(왼쪽)이 열애설을 부인했다.

29일 열애설이 불거지자 양측 소속사는 "친한 건 맞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7월 종영한 KBS2 '상어'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해 4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진현기자

'괴로운 건선' 치료정보 온·오프·앱으로 제공

대한건선학회가 국내 최초로 건선 환자를 위한 건선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됐다.

'건선 바르게 알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건선 학교'는 전문의 강의, 환자 간 멘토링 시스템, 심리치료 등으로 이뤄진 환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온라인 채널인 대한건선학회 웹사이트는 일반인 및 건선 환자들의 니즈 및 편리성을 고려해 질환 정보를 상세히 접할 수 있도록 리뉴얼됐으며, 일반인 및 환자의 질문에 전문 교수들이 직접 참여해 답변을 제공한다. /황재용 기자

별들도 밤캠핑 오는 '만추 낙원'

가을 슬로여행의 명소 '인제군 맑은물 리조트'

LTE급 속도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을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여유를 선물한다. 조금 느리지만 오롯이 나를 위해 즐기며 청명한 가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강원 인제군 맑은물 리조트로의 슬로 여행을 소개한다.

◆만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리조트

그동안 오지로만 여겨졌던 인제군에 자리한 맑은물 리조트는 경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강남에서 1시간30분~2시간 내외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어 강원도 만추의 매력을 실컷 느낄 수 있다.

리조트는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으로 지정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맑고 투명한 물빛이 내린천이 휘감고 있다. 리조트 단지 내 부지는 단풍 군락을 이루는 산책로가 많아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객실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가족의 구성과 취향에 따라 원룸과 복층, 온돌과 침대형 선택이 가능하다. 가장 큰 규모의 S동은 가족용 월풀 욕조와 42인치 PDP TV 홈시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방갈로 형태의 독채 구조인 D동은 1층과 2층으로 된 복층으로 다락방에서는 밤하늘의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찾는 재미를 만날 수 있다. 또 내린천에서의 낚시와 노래방, 족구장, 족구장, 농구장, 자전거 대여 등의 부대시설도 구비돼 있다.

◆맛으로 느끼는 가을의 정취

맑은물 리조트에서는 가을의 별미도 실컷 맛볼 수 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는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쏘가리로 끓인 매운탕을 즐길 수 있으며 다래, 산머루, 오미자, 과실수가 많아 과일을 따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게다가 맑은물 리조트는 모든 객실에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수를 제공하는데 암반수는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도 이롭다. 밤에는 캠프파이어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다. 가족끼리 혹은 다른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캠프파이어 불속에서 구운 고구마와 마시멜로는 가을밤에 가장 어울리는 간식이다. /황재용 기자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9일 서울 종로4가 세운초록띠광장에서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상생의 축제인 '제1회 2013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을 알리고 있다.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시거래 퀴즈 쇼, 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피부는 단풍을 싫어해?

건조한 가을공기 속
장시간 햇볕 노출돼
색소침착 되기 쉬워
선크림·수분공급 꼭!

단풍이 절정에 오르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등산을 하다가 장시간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킬 경우 다양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등산으로 인해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색소침착'. 청담오라클 ILS클리닉 김명남 원장은 "야외활동으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강한 워터프루프 타입의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산 후 피부 관리도 중요하다. 꼼꼼한 클렌징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땀과 먼지,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여성들은 등산 후 사우나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데, 짧은 시간 사우나를 하는 것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지만 오랜 시간 뜨거운 사우나에 있으면 안면홍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모공을 확장시켜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 따라서 등산 후에는 15분 정도의 목욕이나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 좋다.

더불어 건조한 날씨와 등산으로 예민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진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명남 원장은 "가을철 등산은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즐길 경우 공들여 가꿔온 피부가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등산 전후 자외선을 차단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저소득층 여성암 환우돕기' 한마음

이대의료원-AIA생명 1억3000만원 전달식

이화여대 의료원이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과 함께 여성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지난 28일 이대여성암병원 대회의실에서 '여성암 환우 암 극복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AIA생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여성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및 외래 치료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며 서울 강서·양천지역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여성암을 앓고 있는 환우 가족을 선정해 재발 등 기를 고취하고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 여행'을 지원하고 강서·양천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물품 후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이디야커피 1000호점 열었다

중앙대 1호점 낸지 13년만에 '업계 새역사' 답십리에 세워

이디야커피가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최초 1000호점을 달성했다.

이디야커피 문창기 대표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1000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1000호 답십리 사거리점은 2001년 중앙대 1호점을 낸 뒤 13년 만이다.

이날 문 대표는 2017년 2000호점 돌파 등 향후 국내외 사업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공개했다.

이디야커피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출점을 확대해 매년 300개 이상 매장을 오픈, 4년 후 2000호점을 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스틱커피로 인지도를 높인 다음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는 "올해 안에 중국 유통 매장에 우선 스틱원두 제품인 비니스트25를 입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드림 보스턴 나눔재단'(가칭)을 설립(기금 100억원)해 장학생 지원 사업, 결손 가정의 후견인 사업,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디야커피의 1000호점 오픈은 최고의 커피를 '착한 가격'에 제공해 고객과 소통하고 가맹점주·협력업체와 상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미국의 스타벅스, 일본의 도토루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29일 1000호점을 돌파한 이디야커피 문창기 대표. /이디야커피 제공

맛있게 먹고 '행운의 출국'

외식업계 '해외여행 경품' 이벤트 줄이어

최근 식음료 업계가 '해외여행'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명 휴양지 여행권을 제공하는 기존의 이벤트와 달리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소를 선정,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MPK그룹이 운영하는 뷔페 레스토랑 제시카키친은 나폴리 정통의 맛을 담은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떠나자! 나폴리로!' 이벤트를 벌인다.

다음달 3일까지 식사 후 삼성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1등 당첨 고객 1명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나폴리 여행권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직접 나폴리 음식을 경험하며 제시카키친이 개발한 나폴리 메뉴의 맛과 신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BBQ는 연말까지 '해피쿠폰 빅이벤트'를 진행, 스페인 여행권을 증정한다. 스페인산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올리브유의 고장 스페인 여행의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다.

영수증에 적혀있는 행운번호를 BBQ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등 7명에게는 스페인 올리브 농장 체험 및 여행이 가능한 스페인 여행권을 선물로 준다.

카페베네는 이달 말까지 글로벌 문화탐험대 3기를 선발, 뉴욕 매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상의 카페베네 멤버십 고객은 지원서에 지원 동기와 함께 뉴욕에서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이들은 내년 1월 13일부터 4박 6일간 카페베네 뉴욕 매장을 비롯한 곳곳을 탐방하게 되며, 카페베네는 항공권과 숙박 현지 활동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짜파구리 열풍' 아직 살아있네!

짜파게티·너구리면 매출 3분기 라면시장서 2·3위

짜파구리, 골빔면 등 새롭고 특별한 라면요리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AC닐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라면 시장에서 농심 짜파게티와 농심 얼큰 너구리면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MBC '아빠! 어디가?'에서 김성주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끓여 화제를 모은 제품들이다. 최근에는 사천짜파게티와 너구리의 조합으로 매운맛을 한층 살린 '사천짜파구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2분기 3위는 팔도비빔면이 차지했다. 비빔면은 골뱅이와 함께 조리해 '골빔면'이라는 메뉴로 새롭게 탄생한 바 있다.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열풍에 힘입어 9월 시장점유율을 전월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며 65.7%를 기록했다.

3분기에는 라면 시장 '넘버 2' 자리를 놓고 오뚜기와 삼양이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오뚜기는 진라면, 스낵면, 최근 인기를 끄는 참깨라면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라면 시장은 기존의 요리법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입맛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먹는 제품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200명 손맛 버무린 '사랑의 종가집 김장' 대상FNF 종가집이 29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학교에서 '제6회 종가집 김장나눔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김장 봉사에는 이상철 대상FNF 임직원을 비롯해 숭실대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5500kg의 김장 김치는 동작구 내 독거노인, 결손 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남농부'가 키운 '미네랄 절임배추'

면역력 높아 잘 안무르고 아삭아삭 식감 단맛 일품

해남농부

친환경먹거리로 유명한 '해남농부'가 친환경으로 재배한 기능성 미네랄 명품 절임배추를 판매한다.

이 배추는 농약 대신 이온 미네랄을 투여해서 배추 자체 면역력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라남도 해남의 해풍을 맞고 자라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시원한 단맛이 일품이며, 배추 고유의 참미와 당도가 살아있다. 일반 절임 배추와 달리 쉽게 무르지 않아 오래 보관해도 신선한 김치를 맛볼 수 있다. 가격은 20kg(8~10포기) 3만5000원(택배비 포함)이다.

해남농부 대표 오정근(66)씨는 "2년 이상 간수를 뺀 신안군 천일염과 체계적인 정수 시스템, 150m 해수 암반수를 통해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 몸에 보약과도 같은 배추"라고 자신했다. 문의: 010-5323-1438·010-4467-0155

/박지원기자

아웃도어스 고객들 '소백산 트레킹'

4회째 맞은 '해피위켄드' 행사 80명 초대돼 가을 만끽

패션 유통기업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는 지난 26일 고객 80명과 함께 '소백산 트레킹'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트레킹은 매년 100% 고객 참여로 진행해온 '해피위켄드'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의 테마는 '소백산 단풍놀이 여행 스케치'였다.

트레킹에 참여한 한 회원은 "비로사~비로봉~제1연화봉~연화봉~희방사 등 천혜의 골짜기 '희방계곡'에서 연화봉 정상을 오르는 코스를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말했다.

소백산 트레킹을 이끈 김다훈 팀장은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고객 행사인 해피위켄드를 통해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고객 니즈를 파악, 쇼핑몰 운영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늦가을 정취를 고객들과 즐기고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모바일웹 오픈 이벤트

이와 함께 아웃도어스는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접속 가능한 모바일웹(m.outdous.com)을 오픈했다.

아웃도어스 모바일웹에서는 오늘만 특가 코너를 통해 매일 아웃도어 제품을 한 아이템씩 선정, 50~8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모바일로 구매 시 웹에서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웹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15일까지 3만원 이상 첫 모바일 구매 고객에게 20% 할인 쿠폰 및 전 상품 5%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문의 www.outdous.com /박지원기자

'17cm 인간' 지구를 구할까

**베르베르의 신작 SF소설
방사능 환경 속 죽지않는
'에마슈' 탄생이 빚어내는
예측불허의 미래상 그려**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으로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린 장대한 스케일의 과학소설이다.

소설은 저명한 고생물학자 샤를 웰즈 박사가 남극 빙하에서 키 17m인 거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거인들은 나름의 문명을 이뤄냈지만 지금은 빙하에만 흔적이 남은 과거의 인류다. 그러나 인류사를 다시 쓰게 만들 이 중대한 발견은 발굴 현장의 사고와 함께 곧바로 파묻히고 만다.

한편 파리에서는 대통령 직속 비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혹게한 환경과 방사능 속에서도 살아남을 뛰어난 면역력을 갖춘 '제3 인류'를 탄생시킨다. 일명 '에마슈'. 인간(170cm)을 10분의 1 크기로 줄인 17cm의 초소형 인간이다.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열린책들

베르베르는 이 에마슈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거대한 규모의 상상세계를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이 에마슈들의 아버지 다비드 웰즈는 베르베르의 대표작 『개미』의 중심 인물 에드몽 웰즈의 증손자다.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베르베르의 즐거운 문학적 지향은 이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베르베르는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인 인간을 불완전한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노출하게 만든다. 또 에마슈들의 사회에 타락과 범죄, 종교와 제도, 자유의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머를 통해 인류 문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어둡지 않게 유도한 것도 이 작품의 미덕이다.

베르베르는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 행성을 소모하는 자기 파괴적 생활 방식을 계속한다면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인류는 자신을 달라붙시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대목도 곳곳에 있다. 한국을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로 묘사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다. 이번에 출간된 건 2권 분량의 1부다. 최근 프랑스에서 출간된 2부는 현재 번역 중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혹술 활기 　 행운을 불러들이는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기본은 집 안에 밝고 신선한 기운이 돌게 해서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데 있다. 집 안의 거실은 가족의 기가 모이는 곳으로 환기를 통해 유입된 외부 에너지가 집 안의 기운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동사니 없이 넓고 밝은 거실에 돈이 모인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아 여유 공간이 좋은 그만큼 금전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색 계열의 기는 금전 운을 좋게 하기 때문에 쿠션이나 액자 등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평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집 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를 참고할 만하다. -『잘되는 집안의 10cm 비밀』(이상준/예문) 중-

/박지원기자

새로 나온 책

역사
영국인 재발견
권석하/안나푸르나

제리 포터나 비틀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죽은 다이애나가 그토록 영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 영국의 이미지와 실제 영국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풀어낸다.

인문
중년의 발견
데이비드 베인브리지/청림출판

저자는 인간은 다른 생물종과는 달리 생식활동이 끝난 후에도 40세 이상 살 수 있는 '중년 유전자'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세대 간 문화를 공유하는데 이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중년이 맡는다는 것이다.

자녀교육
소년의 심리학
마이클 거리언/위고

아동발달심리 전문가인 저자가 요즘 남자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또 남자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딪히게 되는 심리적·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조언을 제시한다.

함께 그러나 다르게 동료교과
조약유/시간여행

청소년은 감성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때다. 그리고 교사의 최고 가치는 가르침이며 교사에게는 스승 노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생은 방치되고 선생님은 버려지고 있다. 우리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가슴높이로 공을 던져라
황보태조/들녘

3남매를 수재로 키운 포항의 평범한 농부 황보태조 씨의 자녀 교육 이야기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 아이들이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스스로 공부를 즐기도록 도와준 저자의 체험담과 삶의 지혜를 들어본다.

사회
누가 무지개 깃발을 짓밟는가
스티븐 스트릿젠/알마

게이라는 이유로 낙지된 뒤 관중으로 머리가 깨지도록 맞은 뒤 죽음을 맞은 매튜 셰퍼드, 남자가 되려는 체 할몸으로 버려진 레즈비언 탈라나 퀘이크리커 등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혐오 범죄로 희생당한 1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처음 만나는 사자소학
조서영/미래주니어

어린이들에게 바른 성품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사자소학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6개의 주제로 나눠 정리된 원문의 내용을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소설
가면 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문학동네

『작은 아씨들』로 익숙한 루이자 메이 올컷의 네 편의 작품이 실려있다. 작품들은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주의자 올컷의 면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서종일관 팽팽한 긴장을 이끌어가며 새로운 스릴러의 세계를 펼쳐낸다.

자기계발
함께 일해요
존 그레이/더난출판사

직장에서 자신이 배제됐다고 느끼는 여자들의 잘못된 감정이나 여자들은 질문이 너무 많고 감정적이라는 남자들의 오해 등 남녀가 서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8가지 사각지대를 분석한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그레이트존스 거리
돈 드릴로/창비

저항문화의 상징이었던 버키를 이용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려는 세력과 반체제를 표방하면서도 마약 판매 사업에 혈안이 된 세력 등을 통해 1960~70년대 저항문화까지 잠식한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린다.

공들인 포장도 불에 타는건 한순간

화제의 책

홍보는 위기관리다
김상민/소담출판사

홍보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브랜드를 만들고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홍보다. 기업이나 조직, 심지어 개인조차도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광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보다 위기관리가 홍보의 전면에 대두되고 있다. 광고에 예산을 쏟아부어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쉘석유에서 시작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홍보 업무와 동고동락했던 저자는 이처럼 변화하는 홍보를 설명하기 위해 '홍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 홍보와 위기, 어찌 보면 상충하는 두 단어가 어떻게 융합하게 되는지를 명쾌히 풀어낸다.

특히 저자는 자신의 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별로 케이스 스터디를 짧과 동시에 위기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한다.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피소드까지 첨부된 책은 홍보를 배우고 실전 위기관리를 경험할 수 있는 매뉴얼인 것이다.

"위기관리는 불의의 사고나 사회 환경 변화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과 조직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관리가 홍보의 첫 발걸음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올 시즌 제 점수 99점"

귀국 류현진 "내년 초반 10승 목표"

류현진이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미국프로야구 데뷔 첫해를 성공적으로 보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금의환향했다.

류현진은 29일 오후 6시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섰다. 1월 23일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지 9개월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입국 현장에는 오전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로 가득 차 류현진의 인기를 입증했다.

류현진은 "미국으로 가면서 나중에 귀국할 때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첫 해부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록을 세워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시즌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는 "99점은 주겠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99는 류현진의 등번호와 같다.

올해 부상 없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그는 "내년에도 초반에 10승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저스로부터 포스팅 비용과 연봉을 합쳐 6200만 달러(약 660억원)의 영입 제안을 끌어낸 류현진은 현지 언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깨고 첫해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의 성적을 거뒀다. 4월 3일 두 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따냈고,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로 첫 완봉승도 거뒀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고 팀에 귀중한 1승을 안겼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9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8회초 1사 2, 3루 삼성 박한이가 2타점 적시타를 친 후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박한이 "봤지? 결승타"

8회 천금의 2타점 적시타
오승환 1안타 무실점 지켜
삼성, 두산 잡고 KS 2승3패

KS 5차전 전적

■잠실

삼성	301	010	020	7
두산	013	010	000	5

[illegible]

삼성 라이온즈가 박한이의 결승타에 힘입어 기사회생했다.

삼성은 29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5-5로 팽팽히 맞선 8회초 박한이가 천금같은 2타점 적시타를 날려 7-5로 이겼다.

삼성은 시리즈 전적 2승3패를 기록, 안방인 대구에서 열리는 6·7차전에서 반격에 나선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4차전까지 1승3패로 몰린 팀은 13차례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삼성은 이날 1번타자 배영섭 대신 정형식을 기용하고 이승엽을 5번타자로 올리는 등 타순을 대폭 바꿔 부진 탈출을 도모했다. 류중일 감독의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5차전은 초반부터 난타전이 벌어졌다.

삼성은 1회초 2사 후 채태인이 좌월 솔로아치를 그려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최형우와 이승엽, 박석민, 김태완의 연속 안타가 터져 3-0으로 앞섰다.

두산은 2회말 최준석이 1점홈런을 터뜨려 추격에 나섰다. 삼성은 3회초 최형우가 1점홈런을 왼쪽 스탠드에 꽂아 4-1로 달아났지만 두산 타선은 곧바로 삼성 선발 윤성환을 강판시키며 동점을 만들었다.

두산은 3회말 1사 후 정수빈이 몸맞는 공으로 나가자 김현수와 최준석이 연속안타를 날려 2-4로 따라붙었다. 계속된 1사 1, 2루에서 오재일이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4-4 동점을 만들었다.

한박자 늦은 투수 교체로 동점을 허용한 삼성은 5회초 2사 1, 2루에서 박석민이 중전 적시타를 날려 다시 5-4로 앞섰다. 그러나 두산은 5회말 최준석이 이번에는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쏘아올려 5-5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8회초에 승부가 갈렸다. 삼성은 선두타자 진갑용과 정병곤의 연속안타로 무사 1, 2루를 만들었다.

정형식의 번트로 1사 2, 3루를 이어간 삼성은 박한이가 두산 네번째 투수 정재훈으로부터 천금같은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7-5로 승기를 잡았고 9회말 수호신 오승환이 1안타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켰다.

6차전은 31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열린다.

/박상준기자 jun@metroseoul.co.kr

'레스터 역투' 보스턴 WS 우승까지 1승

29일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보스턴의 데이비드 로스가 7회 결승점을 뽑는 안타를 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6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보스턴은 2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월드시리즈(7전4승제) 5차전에서 3-1로 승리했다.

31일과 다음달 1일 홈에서 치를 6·7차전 중 1승만 보태면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의 영광을 안는다.

이날 경기는 1차전에서 선발 대결을 벌인 존 레스터(보스턴)와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의 재대결로 팽팽한 투수전 속에 진행됐다. 웨인라이트는 7이닝 동안 3피안타 10삼진 3실점으로 1차전의 부진을 씻었지만 이번에도 레스터의 구위가 한 수 위였다.

레스터는 7⅔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 월드시리즈 2승째를 따냈다. 일본인 투수 우에하라 고지는 4타자 연속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승리를 지켰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농구 전적 29일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18	16	23	22	79
LG	20	23	17	12	72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Hello. 인사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좋은 아침이에요.
헬렌은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는 잘 지내요, 덕분이요.
오늘 저녁 기분은 어떠세요?
내일 만나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Good morning
How is Helen?
She's very well thank you
How are you this evening?
See you tomorrow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하세요.

A Good morning. 헬렌 어떤가요 Helen?
B She's fine thank you

정답 How is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s [Helen / Mr Green]?

2 [Helen / Mr Green] is very well thank you

미래시제 will

▶ 미래에 할 일을 단순히 예상할 때 쓰는 시제로 '~할 것이다'의 뜻을 가진다

긍정문	주어 + will + 동사원형 ~
부정문	주어 + will not(won't) + 동사원형 ~
의문문	Will + 주어 + 동사원형 ~?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My mom will like the present.
엄마는 그 선물을 좋아할 거예요.

2 I probably won't go out tonight.
아마 저는 오늘 안 나갈 거예요.

3 Will you attend a meeting? 회의에 참석하실 거예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uron Energy, one of the nation's largest energy suppliers, delivers electricity to ______ twenty million customers.
(A) tightly (B) strongly
(C) nearly (D) similarly

02 ______ willingness to create custom-designed fabric has made local textile producer Desmond Finn very popular with movie-set designers.
(A) Which (B) His
(C) Whose (D) Those

01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급업체 중 하나인 오론 에너지는 거의 2천만명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해설 "거의 약 2천만 명의 고객들"이 적절하므로 (C) nearly를 쓴다. "약 대략"을 의미하는 approximately, about도 답이 될 수 있다.
어휘 deliver 를 전달하다, 배달하다 electricity 를 전기 tightly 를 단단히 similarly 를 유사하게
정답 (C) nearly

02 지역 직물 제작자인 데스몬드 핀은 주문 디자인된 직물을 기꺼이 만들어주고자 하여 촬영장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아졌다.
해설 명사 willingness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여행사 소유격인 (B) His를 써야 한다.
어휘 willingness 를 기꺼이 하는 마음 custom-designed 를 주문에 따라 디자인된 fabric 를 직물, 천 textile 를 옷감, 천 movie-set 를 촬영장
정답 (B) Hi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발음에 유의하여 읽기

익숙한 지명이나 나라명이 영어식 발음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명 및 불우명을 반드시 확인하여 영어식 발음을 익혀야 합니다.

• 지명

Manhattan	맨하탄 (X) 맨해튼 (O)	New York	뉴욕 (X) 뉴여어크 (O)
Athens	아테네 (X) 애쓴즈 (O)	Asia	아시아 (X) 에이저 (O)
Chile	칠레 (X) 칠리 (O)	Peru	페루 (X) 퍼루 (O)
Rome	로마 (X) 로움 (O)	Argentina	아르헨티나 (X) 아르전티나 (O)

• 도로명

St. Anthony St.	Saint Anthony Street	6th Ave.	sixth Avenue
Kelington Blvd.	Kelington Boulevard	Riverview Ln.	Riverview Lane

• 인터넷 및 이메일 주소

www.English.com	double u double u double u dot English dot com
shawn110@mail.com	shawn one one zero at mail dot com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1566-7979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